

근대 공론장에서의 여성 담론

: 연설체 신소설을 중심으로

이선옥*

차례

1. 머리말
2. 공론장으로서의 신소설
3. 평등한 주체, 문란한 대상 『금수회의록』
4. 애국계몽의 주체, 한글사용자로서 여성경험의 부정 『자유중』
5. 연설체 신소설의 언어적 특징과 여성담론
6. 마무리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연설체 신소설을 중심으로 공적 담론장에서 여성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설체 신소설을 공론장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당시 정치적, 사회적 담론과 거의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장르적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설체 신소설 중에서 여성담론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자유중』, 『금수회의록』이 있으며, 연설방법을 설명한 『연설법방』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890년대에서 1910년대 사이 근대로의 진입기는 여성이 공적 세계로 진입하는 시기이면서 여성이 말하기의 주체로 등장한 시기이다. 여성들이 공적 세계에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거내이불언외(居內而不言外)의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말하기 경험 자체가 여성들을 고무시켰던 것은 중요한 여성 주체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말하기가 가능했던 것은 애국주의 이념과 근대적 국민주권 이념이 결합하면서 여성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규정되었고, 새로운 말하기 형식으로 등장한 연설, 토론이 여성의 공적발언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설체 신소설을 통해 본 여성담론은 여성이 문란한 계몽 대상으로 구성되거나, 생활세계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여성적 언어의 감수성이 삭제되는 전형적인 남성적 체도로의 재가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종』에서는 한문 대신 새로운 한글공론장으로 이전한 남성지식인이 그동안 한글 사용자였던 여성들의 언어를 전유하면서 내용적으로 새로운 언어위계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간의 한글소설은 허랑, 방탕, 퇴폐한 글이었으며, 한글세계에 있었던 여성들은 그간 한 글자도 지식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몽연설을 통해 오랫동안 여성의 언어였던 한글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자기부정을 거치고 다시 남성적 지식의 세계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핵심어 : 신소설, 연설체 신소설, 공론장, 여성담론, 젠더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연설체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초기 여성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890년대에서 1910년대 사이의 근대로의 진입기는 여성이 공적 세계로 진입하는 시기이면서 말하기의 주체로 등장한 시기이다.¹⁾ 신문매체에 투고²⁾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찬양회 등의

1) 이상경은 『여성의 근대적 자기 표현의 역사와 의의』(『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37쪽)에서 남녀동등론과 여성교육에 대한 강조, 여성현실에 대한 근대적 자각 등이 여성들의 직접표현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예로 이 글에서는 양반집 여성들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돌린 통문글(『제국신문』

조직을 통해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서 여성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의 활동에 대한 기사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설 등의 형태로 여성담론이 형성된 시기이다. 여성담론은 여성들의 자기표현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남성작가들의 여성 관련 글, 매체를 통해 구성되는 여성 관련 글 등 다양한 발화주체를 통해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남성작가들이 쓴 연설체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담론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연설체 신소설은 말하기를 다시 글로 옮긴 독특한 방식의 소설로 실제의 연설이나 생활세계의 말하기와는 다른 공적 말하기(public speaking)의 형식을 볼 수 있는 장르이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1908), 김필수의 『경세중』(1908), 평소생작 『병인간친회록』(1909), 이해조 『자유중』(1910) 등의 연설체 신소설³⁾ 중 여성 담론을 직접적으로 다룬 안국선과 이해조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설체 신소설들은 애국사상과 만민평등사상을 고취하고 사회지도층의 부패상을 비판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설체 신소설들은 당시 유행했던 연설회의 주제와 내용을 서사화한 것으로, 근대로 접어드는 조선에 여론의 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 글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처음 등장한 여성들이 연설체 신소설에서는 어떻게 호명되고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설체 신소설의 여성담론을 설명할 때 먼저 이 논문에서는 공론장의

1898년 9월 13일자 「논설」을 제시하고 있다.

- 2)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역사』 12, 2010, 근대 매체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들에 대해 『세국신문』에 투고한 여성들의 상소문, 기서, 청원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191쪽.
- 3) 연설체와 토론체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이 글에서는 계몽주체와 계몽대상의 교감을 중시하는 일방담론의 연설 형식 작품들을 연설체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거부오해』, 『금수재판』, 『절영신화』 등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발화자들의 쌍방토론 혹은 찬반토론이라는 점에서 토론체 소설로 구분하였다.(문한별, 「연설의 근대적 서사화 가능성-연설체의 서사적 특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8, 2012, 338쪽 참조)

개념을 적용하여 담론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신소설은 당대의 정치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담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계몽적 성격이 강한 연설, 토론체 신소설은 정치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법제도의 변화나 경찰제도의 변화 등 형식적 법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문명개화와 애국애족, 만민평등사상을 설파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을 공론장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연설체 신소설의 여성담론이 당대의 사회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좀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공론장으로서의 신소설

신소설은 『독립신문』(1896), 『황성신문』(1898), 『제국신문』(1898), 『대한매일신보』(1904) 등 근대 신문과 잡지 등이 발간되기 시작한 시기에 등장한 소설이다. 매체의 발달과 함께 시민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근대적 매체를 통해 유통소비된 최초의 소설인 것이다. 신소설을 ‘공론장(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허구적 장르로서의 완결된 구조라기보다는 매체의 담론과 거의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로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함께 계몽소설로서의 특징이 그러한 정치, 사회적 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간 신소설은 서사장르로서 갈등구조(가정소설의 처첩갈등이나 신구갈등 등)나 인물구성 등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성과가 이루어져왔다. 서사로서의 신소설의 특징을 분석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신소설이 근대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사회가 겪게 되는 제도, 일상, 의식의 변화를 논의하는 계몽소설임을 주

목할 때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공론 형성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허구적 장르로서의 완결성을 분석의 시각으로 삼게 되면 신소설은 고전소설투의 상투적 구성이나 통속성,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주인공의 미숙성 등 근대 장르로서의 미달태라는 점에 주목하기 쉽다. 오히려 공론장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소설이 다루고 있는 당대의 이념이나 제도, 생활세계 등에 대한 훨씬 더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신소설은 신문기사나 법제도, 경찰제도, 새로운 국가적 규율 등이 직접적으로 작품에 등장하고 개인의 삶으로 기입되는 방식이 갈등의 주를 이룬다. 새로운 법률 제도와 일상적 삶의 갈등을 다룬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범죄소설이나 재판소설이라는 소재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법제도와 공권력이 정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작품으로는 『고목화』, 『빈상설』, 『구마검』, 『홍도화』, 『소학령』, 『구의산』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법적 판관이 등장하여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작품들로 『마굴』, 『고의성』, 『행낙도』, 『벽부용』, 『소양정』 등⁴⁾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신소설에는 사법제도가 일상을 규율하게 되는 과정을 주제로 삼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런 특징은 신소설이 당대의 제도변화나 제도의 일상화, 그로 인한 개인간의 갈등 문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정규율이나 가족제도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근대적 제도 등은 가정소설이나 재판소설 등의 주갈등이 되고 있어서 여성담론의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공론장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주목되는 신소설은 연설, 토론체 신소설이다. 특히 연설체 소설은 당시의 연설회를 옮겨 놓는 방식으로 정

4)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박사논문, 2004.; 조형래, 『근대계몽기 범죄와 신소설』, 동국대학교석사논문, 2004.; 이지훈, 『신소설에 나타난 법과 일상성의 의미 연구-근대 주체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논문, 2009 등이 있다. 이지훈의 논문에서는 근대적인 법이 국민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근대적인 정신을 창출하고 일상을 규율하는 힘으로 작동하는데, 이해조, 최찬식 등의 작품이 법제도와 일상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치적 담론과 문학이 직접 소통하고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설과 토론체에 대해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⁵⁾를 살펴보면 주로 연설, 토론체의 특징과 근대적 글쓰기와 말하기 제도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공적 담론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연설, 토론체 신소설의 주제나 연설회, 토론회 등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장’이란 사적 개인으로서의 공중이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하버마스의 개념이다.⁶⁾ 이 개념은 사적개인과 공적국가가 형성되는 시점에 그 중간 매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신소설의 특성을 분석할 때 유용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 담론장을 통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규율 등이 개인의 삶으로 각인되기도 하고 개인의 욕망이 공적 제도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여론의 추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흔들리는 담론적 경쟁이 신소설의 담론장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공론장은 특정 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와 상품의 유통 영역이자 수단으로서 인쇄 매체, 모임, 토론 단체, 교통망, 그 밖의 유통 기제들을 동원하여 계급적 합의를 창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공적 기제의 총체적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고 계급 상승의 이념적 요인인 합리성을

-
- 5) 신지영, 「연설, 토론이라는 제도의 유입과 감각의변화」, 『한국근대문학연구』 6, 2005; 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대중서사연구』 17, 2007; 홍순애, 「근대소설의 형성과 연설의 미디어적 연계성 연구-191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2, 2009; 김지영, 「근대적 글쓰기의 제도화 과정과 변환양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9; 문한별, 「연설의 근대적 서사화 가능성-연설체의 서사적 특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8, 2012;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역사』 12, 2010; 전은경, 「근대계몽기 지식의 독자의 '읽기'와 '쓰기'-대한민보 『풍림』의 대화체서사와 토론체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5, 2013.
- 6)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2001, 35쪽.

널리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 신문과 저널, 살롱, 커피 하우스, 각종 모임, 단체 및 상품 유통의 기제들을 적극 활용해 공공성을 획득하여 갔음에 주목했다.⁷⁾

위의 글처럼 공론장이라는 것이 한 시대의 계급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여론의 총체라고 본다면, 신소설 역시도 근대 부르주아국가의 형성과 시민계급의 자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된다. 신소설 외에도 개화가사, 단형서사물, 우화·풍자 소설, 창가, 역사전기류 등 이 시기의 다양한 장르 등도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소설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문의 사용이다. 신소설은 국문공동체의 중심장이 되는데, 갑오정부가 발표한 「칙령11호」에서 국문을 본으로 하고, 국주한중(國主漢從), 국본한부(國本漢附)를 사용한다고 선언하면서 양반사회의 지식권력은 시민사회로 재편된다. 식자층이 국문 세계로 밀려들어와 평민과 합류한 것이다.⁸⁾ 한문 사용을 지식권력의 핵심으로 삼았던 양반층이 근대의 지식인층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은 한문 사용이 아닌 국문 세계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한문 중심의 식자층이 국문의 세계로 들어와 그들의 지식을 전달하고 공론장의 여론 형성을 하고자 할 때 내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의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한 방식이 연설과 토론을 통한 계몽의 담론들이다. 지식인층의 계몽적 담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자 시민의 자질로서 선택된 것이 연설, 토론이었다. 신지영은 만국공법이 제시했던 비전의 빈자리를 문명개화이자 언론자유의 제도인 연설, 토론이 채운다고 분석한 바 있다.

조선에서는 만국공법이 제시했던 비전의 빈자리를 문명개화이자 언론자

7) 송호근, 『시민의 탄생-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변동』, 민음사, 2013, 10쪽.

8) 송호근, 앞의 책, 410~411쪽.

유의 제도인 연설-토론이 채운다. 연설-토론은 근대 문명의 교육과 전파의 장이자, 만국공법적 세계질서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설-토론이라는 제도는 지식인 뿐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도 퍼져나갔고, 근대적 시공간 감각이나. 언권을 가질 주체형성, 신체적 말하기 방식 등에 변화를 일으켰다. 문자와 음성의 중간, 발화하는 지식인과 호응하는 인민의 중간, 담론과 신체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특수성을 지닌 연설-토론은 근대국가담론의 전파과정을 다각적인 반응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담론적 신체적 제도였다.⁹⁾

이처럼 연설, 토론은 만민평등 사상과 문명개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담론의 한 형식이면서 근대인으로 탄생하는 언어 감각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00년대 이전부터 학교교과목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연설, 토론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것은 유길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중적으로 보급 시킨 것은 서재필과 윤치호로 알려져 있다.¹⁰⁾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안국선¹¹⁾의 연설개론서인 『연설법방』과 이를 소설화한 『금수회의록』을 통해서 문학적 서사로 전파되기 시작한다. 당시 연설회에 대한 보고기사들과 거의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 작품들로 실제 정치담론과 가장 근접한 장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소설은 직접적인 문명개화, 애국계몽의 계몽연설에서부터 법제도, 국가제도, 가족제도 등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제도의 수립에 대한 여론의 형성 역할을 수행한 담론장이라 볼 수 있다.

3. 평등한 주체, 문란한 대상 『금수회의록』

9) 신지영, 앞의 논문, 10쪽.

10) 이항직,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 프로네시스, 2007, 17쪽.

11) 이정옥, 앞의 논문, 156쪽.

1907년 안국선의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은 근대 시민사회 형성과 공공역역 즉 담론장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연설법방』은 일본의 화법책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연설과 토론의 방식을 소개한 책이다. 국한문체로 1907년 일한인쇄주식회사(日韓印刷株式會社)에서 간행되었으며, 1908년에 3판본이 간행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독(多讀), 다청(多聽), 다연(多演)을 연설을 잘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연설문 구성법과 실제 연설의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최근의 발표와 토론 책과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본론은 ‘웅변가의 최초’, ‘웅변가 되는 법방(法方)’, ‘연설자의 태도’, ‘연설자의 박식’, ‘연설자의 감정’, ‘연설의 숙습(熟習)’, ‘연설의 종결’ 등으로 연설하는 방법과 연설문 구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부록으로는 ‘학술강습회의 연설’, ‘낙심(落心)을 계(戒)하는 연설’, ‘청년 구락부에서 하는 연설’,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연설’, ‘단연연설(斷烟演說)’, ‘학교의 학도를 권면하는 연설’, ‘부인회에서 하는 연설’, ‘운동에 대한 연설’, 등 실제 연설 예문이 수록되어 있다.¹²⁾

안국선은 ‘언론이 문명을 이끄는 그릇이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먼저 깨달은 자의 계몽하는 연설과 따라오는 자의 토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오래된 낡은 나라가 제도를 버리고 새롭게 함은 마땅히 피하여 언어야 하지만 백성이 어리석고, 문명은 모름지기 일으켜야 하지만 사회가 어리석어 사리에 어두우니, 먼저 깨달은 사람의 마땅히 깨우치는 말은 어쩔 수 없으며, 뒤따라 나오는 자는 또한 토론이 한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어 자유를 무겁게 여기니, 서양속담에 말하기를, ‘언론 자유는 문명을 이끄는 그릇이다’라 하였다.¹³⁾

12) 이 논문에서 사용한 안국선의 작품은 안국선, 『금수회의록 외』(범우비평문학4, 종합출판범우, 2004)를 텍스트로 하였다. 이하 쪽수만 표기하기로 하겠다.

13) 위의 책, 107쪽.

언론이 떨치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가 일어나니 못하고, 나라의 권력이 또한 따라서 떨치지 못해 선정의 아름다움을 꾸며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나는 언론 사회의 떨치지 못함을 근심해 이 책을 지어 인쇄하고 세상에 내놓으니……14)

이 예문은 『연설법방』의 머리말 부분이다. 언론의 자유를 문명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국민의 권리로 꼽고 있다. 이를 통해 나라의 권력이 떨치고 일어난다는 표현은 언론자유와 이를 통한 여론의 형성이 국민주권을 형성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강조에서 과연 여성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설법방』에는 연설문 중에 여성해방 관련 연설이 실려 있어서, 안국선의 여성의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이후 『금수회의록』에서도 남녀평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대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여성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평등사상은 애국계몽의 일환으로 여성을 국가를 위한 일원으로 호명하기 때문에 구체적 여성이 아니라 국가의 여성으로 추상화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여성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연설법방』의 「부인회에서 하는 연설」의 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사회의 기초는 부인 사회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작하여 여자사회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내외법을 지적하며, 장옷을 쓰고 사륜교나 장독교를 타고 다니는 폐풍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한국의 부인 사회가 지난날에 비하면 대단히 발달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모임도 있고 여자의 학교도 있어, 자선사업이 라든지, 교

14) 앞의 책, 108쪽. 김복순, 「한국근대초기 서발비평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18, 1998, 61쪽. 신소설의 서문과 발문은 풍속개량, 구습타파, 신교육역설 등 사회계몽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애국이 탈각한 이후 단순한 문명개화론으로 퇴행한다고 비판한다.

육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좋은 일이 점점 베풀어 갖춰져 나라와 사회에 이로움을 미침이 많고 큰 것은 보통사람들이 감사하는 바올시다.(159쪽)

위 내용은 여성을 위한 모임이나 학교, 자선사업, 교육사업 등등 여권신장을 위한 조건은 마련되었으나 내외법이라는 오래된 풍습에 갇힌 여성들이 많으니 그것이 문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제 우리 부인과 남자를 말할 것도 없이 사회 문명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일꾼이 되려면, 아주 일꾼의 모양을 차리고 나서야지, 이 앞과 같이 내외는 내외대로 하고, 타고 다닐 것은 타고 다니고, 편히 앉아서 목적을 이루려 하려면, 딱 잘라 못한다고 똑똑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한 사람은 그 일을 나아가 행할 때에 다함이 없는 곤란을 겪었던 것이요, 편안히 일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162쪽)

이 시기에는 유독 풍속문란에 대한 여성의 기사가 많았다고 하는데, 본부 살해, 가출, 성매매 등¹⁵⁾ 계몽의 대상으로 문란한 조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이 결혼제도와 사생활 관련 폐습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안국선의 여성관은 여권신장을 주장하지만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도 분명해 보인다. 『금수회의록』에서도 결혼제도나 효 등 가정생활의 문란함을 지적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연설체 신소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금수회의록』은 1908년 황성서적업조합에서 출간되었으며, 1909년 언론헌판규제법에 의하여 금서 조치

15) 최기숙, 『근대초기 결혼생활의 명암과 ‘문란한’ 조선의 재구성』,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제3회연합심포자료집』, 2014.10 참조. 고순희, 『개화기 가사를 통해 본 여성담론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에서는 부정적 여성상에 대한 여론화에 대해 『대한매일신보』가사를 분석하고 있다. 매음녀, 음탕녀에 대해 비판에서 첩, 신여성들의 행각에 대한 부정적 가사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9~210쪽.

가 내려진 작품 중 하나이다. 인간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풍자한 우화소설로 동물들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서언에서 화자가 금수의 세상만도 못한 인간세상을 한탄한 뒤, 꿈속에 금수 회의소에 들어가 그들의 회의를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회 문명을 일으키는 사회의 한 분자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조화로 만들어졌으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 오히려 하는 일이 모두 악하고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사회 비판이 이 소설의 서두에서 제시되고 있다. '사람된 자의 책임', '사람의 행위를 들어 옳고 그름을 의론하는 일', '지금 세상에서 인류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하는 일'이 결의할 안건으로 제시되었다. 개회취지를 밝힌 후 반포지효(反哺之孝-불효), 호가호위(狐假虎威-역적들과 불의로 남의 나라를 침략), 정와어해(井蛙語海-시대착오적 열개화와 사기꾼), 구밀복검(口蜜腹劍-표리부동), 무장공자(無腸公子-부패와 부도덕), 영영지극(營營之極-다툼과 골육상쟁),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탐관오리), 쌍거쌍래(雙去雙來-문란해진 부부운리)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동물들이 연설을 이어나간다.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게, 파리, 호랑이, 원앙이 등장해 인간들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폐회에서 다시 인간 화자가 인류의 문제점을 느끼고 작성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세상이 오래되어 갈수록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오늘날 외서는 거족은 사람의 형용이 그대로 있지마는 실상은 시랑과 마귀가 되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밥이 되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압제하여 남의 권리를 누탈하여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으며, 남의 토지를 앗아가며,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망케 하니, 그 흉칙하고 악독함을 무엇이라 이르겠소.(31쪽)

이 작품에서 보이는 현실진단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대풍속이 문란해졌으며, 이를 판단하고 헤쳐나갈 지배층이 부패하여 암울한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계를 개혁할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계몽 교육과 교육 방법으로서의 연설과 토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계몽의 대상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여편네는 학식이라도 조금 있으면 주제넘은 마음이 생겨서 온화유순한 부덕을 잊어버리고 시집가서는 시부모 보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물건같이 대접하고, 심하면 원수같이 미워하기도 하니 인류사회에 효도 없어짐이 지금 세상보다 더 심함이 없도다.(19쪽)

사람들은 음란하여 별일이 많으되 우리 여우는 그렇지 않소 우리는 분수를 지켜서 다른 짐승과 교통하는 일이 없고,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러하시되 사람이라 하는 것들은 음란하기가 짝이 없소. 어떤 나라 계집은 개와 통간한 일도 있고, 말과 통간한 일도 있으니, 이런 일은 천하 만국에 한 두 사람뿐이겠지마는, 한 손가락 국으로 온 솔의 맛을 알 것이라. 근래에 덕의가 끊어지고 인도가 없어져서 세상이 결판날 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사람의 행위가 그러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짐승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대갓집 규중 여자가 논다니로 놀아나서 이 사람 저 사람 호리기와 각부 아문 공청에서 기생 불러 노름 놀기, 전정이 만리 같은 각 학교 학도들이 청루방에 다니기와, 제 혈육으로 난 자식을 돈 몇 푼에 욕심나서 논다니로 내어놓기, 이런 행위를 볼작시면 말하는 내 입이 더러워 지오.(24쪽)

남성의 축첩이나 기생놀음 등도 폐풍으로 비판되고 있으나 유독 여성에 대해서는 결혼생활과 성적 문란함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병든 남편을 두고 간통하는 일이나, 불공을 드린다하고 중서방을 하는 일이나, 남편 죽은 지 사흘도 못되어 서방해갈 주선하는 일 등도 음란함에 대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여성을 새로운 국가의 주체로 언급하는 동시에 이처럼 문란함의 대상으로 재구성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의 이념적 재편이 이루어질 때 담론상에서 각 이념 간 위계의 전치, 재배열¹⁶⁾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성의 일상생활을 근대적으로 합리화한다는 신지식은 낙후된 여성에 대한 계몽과 처벌의 담론을 통해 여성을 열등화하고 이것이 자국의 문화로 비유되는 쉐임 컬처(shame culture)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유교적 지식인인 안국선이 기독교 사상과 접합하여 평등주의를 주창하지만 추상화된 국민주체로서의 여성과 실제의 여성은 분리된다. 내면화된 유교적 가치서열이 근대적 계몽주체로 불완전하게 변이한 형태로 판단된다. 안국선이 후에 친일로 가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계몽적 지식인의 불완전한 평민 담론장으로서의 이전 때문으로 생각된다.

4. 애국계몽의 주체, 한글사용자로서 여성경험의 부정-『자유종』

이해조의 『자유종』은 광학서포에서 1910년에 발행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주제는 여권신장, 반상 차별의 철폐, 지역 차별의 철폐, 여자 교육의 필요성, 한글 사용의 중요성, 서열 차별 폐지, 자주국가수립 등으로 볼 수 있다. 매정부인의 생일잔치에 모인 설현, 금운, 국란부인 등 네 사람의 신여성들이 시국문제와 국가의 장래에 대해 연설하고 토론하는 작품으로 ‘개명된 독립국가의 의젓한 국민으로서, 자유를 찾고 권리를

16) 푸코는 『정치학과 담론』라는 논문에서 대상(objects), 작동(operations), 개념(concepts), 이론적 옵션(theoretical options)을 중심 요소로 분석하여 줄임과 내포, 일반화, 대상 사이의 위치전환, 대립항 사이의 우위가 바뀌는 변화, 종속소의 변화, 배제와 포함 등을 추적해보면 담론 구성이 바뀌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방법은 실제 담론 연구에서 지배담론이 육체로 재해석되고 위치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Graham Burchell ect. edit,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The Univ. of Chicaco Press, 1991, p.56)

행사할 수 있는 새날을 희구하는 염원으로 일관된 작품'이다.¹⁷⁾

이전 같으면 오늘 이러한 잔치에 취하고 배부르면 무슨 걱정이 있으리까 마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며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요? 내 말이 연설 체격과 흡사하나 우리 규중 여자도 결코 모를 일이 아니올시다. 일본도 삼십년 전 형편이 우리나라보다 우심하여 혹 천하대세라 혹 자국전도라 말하는 자는, 미친 자라 괴악한 사람이라 지목하고 인류로 치지 않더니, 점점 연설이 크게 열리매 전도하는 교인같이 거리거리 떠드나니 국가 형편이요, 부르나리 민족사세라 이삼인 못거지라도 술잔을 대하기 전에 소회를 말하고 마시니. 전국 남녀들이 십여 년을 한담도 끊고 잡담도 끊고 언필칭 국가라 민족이라 하더니, 지금 동양에 제일 제이 되는 일대 강국이 되었읍니다.(145쪽)¹⁸⁾

나라의 위기를 당해 여자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신설 현의 화두로 연설이 시작된다. 특히 그녀는 학문의 중요성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대한의 정계가 부패함도 학문 없는 연고요, 우리 여자도 학문 없는 연고로 기천년 금수대우를 받았으니 우리나라에도 제일 급한 것이 학문이요, 우리 여자사회도 제일 급한 것이 학문인즉 학문 말씀을 먼저 하겠소.(146쪽)

프랑스 파리대학의 찬반토론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태리의 예화를 소개하기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 특히 중화주의가 아닌 자국의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국의 지리와 정신을 가르친 후에 만국

17) 최성운, 『이해조의 『자유중』에 나타나는 교육구국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호, 2001 참조.

18) 『한국신소설전집』 2, 을유문화사, 1968. 이하 페이지만 표시

역사와 만국 지지를 가르치고, 이를 위해 자국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자교육 외에도 여성조직, 잡지 발간, 적서차별 철폐, 만민평등사상, 자녀교육과 애국주의 사상 등이 연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남녀차별, 적서차별 금지는 만민평등사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애국주의적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비록 종의 자식이나 거지의 자식이라도 우리나라 공물은 일반"(160쪽)이라 말하고 있으며, 자식은 개인의 것이 아닌 나라의 공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자식이라는 것이 내 몸만 위하여 난 것이 아니오, 실로 나라를 위하여 생긴 것이니 자식을 공물이라 하여도 합당하오.(158쪽)

개인의 탄생과 주권의식보다는 애국주의적 계몽이 우선하고 있어서 평등의식 역시도 국가주의적 인식의 기반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문사용과 관련된 논의 부분이다. 다른 주제는 비교적 통일된 목소리로 주장을 전달하고 있는 반면에 국문사용과 관련된 부분만은 한문 폐지와 국한문혼용 주장이 엇갈려 나타난다. 금란은 한문은 중국의 정신을 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란은 한문을 없애고 국문만 쓰면 배울 지식이 없고, 부인이나 천인이 보고 배우던 춘향전, 심청전 같은 음탕교과서나 홍길동전 같은 허황교과서밖에 배울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아직은 혼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세종대왕 근로하신 성덕은 다 말씀할 수 없거니와 반절 몇 줄에 나라 돈도 많이 들었소. 그렇건마는 백성들은 죽도록 한문자만 숭상하고 국문은 버려두어서 암글이라 지목하여 부인이나 천인이 배우되 반절만 깨치면 다시 읽을 것이 없으니 보는 것은 다만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등물 뿐이라, 춘향전을 보면 정치를 알겠소? 심청전을 보고 법률을 알겠소? 말할진대 춘향전은 음탕교과서요, 심청전은 처량교과서요, 홍길동전은 허황교과서라 할 것이니, 국민을 음탕교과서로 가르치면 어찌 풍속이 아름다우며, 처량교

과로 가르치면 어찌 장진지망이 있으며, 허황교과로 가르치면 어찌 정대한 기상이 있으리까? 우리나라 난봉남자와 음탕한 여자의 제반 악징이 다 이에서 나니 그 영향이 어떠하오?(150쪽)

이러한 언어관에서 보면 여성인물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실상 남성적 계몽의식을 전달하는 것이지 실제 여성들의 언어나 생활세계와는 유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 독자들의 정서가 적층된 한글소설들이 모두 음탕, 처량, 허황으로 폄하되고 근대적 언어세계에서 삭제되는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¹⁹⁾ 여성적 감수성이 반영된 언어가 다시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로 인정되고 발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20년대 신여성의 등장 이후로 보인다. 이해조는 안국선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계몽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남녀차별이나 반상차별 철폐 등 국민 주체의 형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인물들의 입을 통해 말하는 전략으로 계몽적 효과를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몽 이념의 보편적 주제를 전달하는 것일 뿐 여성의 생활 세계의 감수성이나 오랜 기간 여성적 담론의 세계²⁰⁾였던 한글소설 등은 모두 폐습으로 비판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5. 연설체 신소설의 언어적 특징과 여성담론

연설체 소설은 내용의 측면만이 아니라 언어적 형식에서도 근대적인

19)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100쪽. 당시 계몽담론의 일반적인 수사는 ‘고담책’을 비롯한 전통사회의 독서물을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내몰고 새로운 교육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20) 『춘양전』이나 『심청전』 등 한글소설은 작자 미상의 작품들로 구전 설화처럼 여성 독자들의 정서, 언어, 경험 등이 조금씩 쌓여 작품이 형성 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적층성을 작품의 특성으로 한다.

공적 말하기가 구성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정치연설의 형식을 그대로 들여와 말하기 방식을 구성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입말-진행(고사성어)-반전(세태비판)-결과(자기 인정)²¹⁾로 이어지는 연설의 기본 형태에 조금씩 변형 요소들을 넣어가면서 연설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연설법방』의 부인회 연설도 『금수회의록』, 『자유중』의 경우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식을 보여준다. ①도입말에서 자기소개와 문제제기, 주제소개가 이루어지고 ②중국의 고사나 서양의 사례를 통해 주제의 타당함을 논증하고 ③현실비판을 한 후 ④자기반성 혹은 개혁의지 고취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 형식은 실제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이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기입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김교제의 『목단화(牧丹花)』(1911년 광학서포)에는 ‘가정소설’로 신학문을 배운 주인공 정숙이 계모의 모해로 고난을 겪고 떠돌다가 선생이 되어 연설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계모의 모략을 피해 피신을 다니던 정숙은 의주 근처 한 마을로 들어선다. 지리학을 배운지라 세상을 유람한 듯 지리에 대해서도 밝은 정숙을 보고 그 동네 학교 교장인 최주사가 교원으로 쓰고자 한다. 정숙은 이 학교에서 일 년 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 떠나는 정숙을 위해 송별회를 개최하여 원근 학교들도 모두 모여 성황을 이루고 정숙의 연설이 이어진다. “금일 여러 동포자매께서 이만 여자를 위하여 이처럼 광림하셨으니 일변 감사하고 일변 불안하외다. 본인이 여기 온 지 일 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애호하심을 입어 문명계에서 활동하니 평생 소원이 족하다가 사실상 부득이하여 여러 신사와 여러 자매의 후의를 괘시하고 금일 작별을 고하오니, 창결하기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쪼록 교육계에 신공기를 많이 흡수하여 건강히 지내심을 축수하오. 이별에 할 말씀이 무궁하나 이만합니다. 말을 마치니 남녀학도와 교육계 신사들이 모두 이정숙씨 만세를 부르더라.”(62쪽)²²⁾ 이처럼 긴 연설이 직접 작품에 기술되고 있는데, 청중들의 호응이

21) 전은경, 앞의 논문, 534쪽. 『병인간친회록』의 연설구조를 분석하면서 기본구조에 약간씩 변형 요소들을 가미하면서 연설이 진행된다고 분석하였다.

상당했다는 당시 연설회의 광경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또 경의선 정거장 부근의 학교마다 이정숙을 환영하느라 북적거리는데, 신안주 경내의 유명한 여학교에서도 연설을 하게 된다. "본인은 연전한 여자로 학식도 없이 여러분께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실례오나, 잠깐 설명할 말씀이 있으니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지금 이십세기 신평조를 당하여 우리 여자된 동포는 절대적 관념이 없으면 도저히 아니될 줄 생각하오. 그 절대적 관념이 무엇이나 하면 대강 말하건대, 태서 각국 여자의 인격과 우리 여자 사회의 인격을 비교한즉 소양이 현수하다 하겠소. 태서의 여자들은 농상공업과 기타 제반 사업의 발명·연구함을 남자에게 양두치 않고 생명 재산을 남자에게 의뢰치 아니하는 고로 국민의 당연한 자격을 손실치 아니하고 자식을 생육하며, 가정교육이 필요한 결과로 타일(미래에)에 무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문명을 계발하니, 금일 태서 각국의 문명 발달됨이 모두 여자 학문의 발달된 효험이라 하오."(63-64)라고 말한다. 이어서 우리 여자계의 어리석음도 지적한다. 팔자에 흠이 된다고 교육을 막고, 평생 심선여공과 주식제사에 무꾸리나 기도로 인생을 삼는 여자의 일생을 개탄한다.

정숙의 여학교에서의 연설은 앞서 보았던 연설체 신소설의 연설 구성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도입말에서 자기소개와 주제소개-태서 각국의 사례로 논증-현실 비판-마무리말로 계몽의식을 고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연설회의 여성 연설들²³⁾을 좀더 비교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연설 방식은 당시 연설, 토론의

22)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8. 이하 페이지만 표기하겠다.

23)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에 여성교육과 관련된 여성 연설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홍인숙, 『여학교 주변의 여자들:신문, 잡지 등에 나타난 제도 교육 최초형성기(1898-1910)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2006, 122~124쪽 참조.) 이 연설을 소개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청중들이 열광하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제국신문 1907.7.17에 실린 기사는 "예매레황 부인과 김현련 부인과 십이세 된 녀즈 옥어진씨며(중략) 연설호는디(중략) 혹 가삼을 두달이며 혹 눈물을 흘리며 녀즈교육이 데일 필요되는 줄을 씨닷는지라."라고 하여 청중들이 감동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으로 제시된 계몽연설의 방식 그대로를 기입한 형식으로 판단된다. 시나 산문을 지을 때 고대의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유래가 있는 어휘를 인용하던 방식 즉 전고(典故)를 사용하던 방식을 서구식 연설방식과 습합한 구조로 보인다. 이러한 문어체 글쓰기가 한문세계 속에서 한글로 자기표현을 생산해왔던 여성적 글쓰기와 어떻게 다른가를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²⁴⁾ 앞으로 연구해나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선 이 글에서는 한글을 중심언어로 삼게 되면서 새로운 지식의 위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근대 공론장은 한문 중심의 지식인들이 한글 지식장으로 이동하는 대변동의 시기였다. 한글과 한문의 가치계열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남성적 지식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계열의 배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연설체 신소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여성독자들과 소통했던 한글소설을 허랑, 방탕, 퇴폐한 글로 만드는 것이었고, 한글세계에 있었던 여성들이 그간 한 글자도 지식을 몰랐다고 계몽연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간의 한글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자기부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안에 담겼던 여성의 경험, 감정은 모두 지식의 세계에서 평가절하되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 여성들이 공적 세계에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거내이불언외(居內而不言外)의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말하기 경험 자체가 여성들을 고무시켰던 것은 중요한 여성 주체의 경험²⁵⁾이었다. 양반계층의 부인들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기생들도 정치적 발언을 했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애국주의 이념과 근대적 국민주권 이념이 결합하면서

24) 양문규,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출판, 2013, 43~65쪽 참조. 판소리문학의 민중적 구어전통이 계승되면서 근대로의 과도기에 등장한 문어체를 극복하고 구어체 서사를 형성해갔다고 분석한다. 이 연구는 여성적 글쓰기가 구어전통을 계승하면서 그 안에 여성적 경험을 담아내는 글쓰기로 성장해왔음을 분석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25) 홍인숙, 앞의 논문, 123쪽.

여성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규정되었고, 또한 공적 발언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연설, 토론이 이러한 사상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언어가 공적 영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텍스트들도 등장하였다.²⁶⁾ 남성작가의 연설체 계몽서사나 기사들과는 다른 관점을 보인 여성독자들의 투고문을 분석한 이경하의 연구는 근대 공론장에서의 여성담론을 분석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⁷⁾ 당시 여성독자들을 위해 창간된 『제국신문』에서는 여성교육이나 축첩, 과부개가 등의 문제들을 자주 다루었는데, 이에 대한 독자투고로 신문의 논설 관점을 비판하는 시골 부인의 편지가 실린다. 축첩제도의 폐지를 논하면서 첩에 대한 비하와 처첩간 차별을 강화하는 신문의 논조에 대해 이 독자는 “부인도 층층이요 스부도 층층이지 스부의 쫓이라고 힝세가 톱잡으면 그리도 부인잇가.”(『엇던 유지각한 시고올 부인의 편지』, 제국신문, 1998.11.10)라며 신문의 논조를 비판²⁸⁾하고 처첩의 대립이 아닌 개개인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신문에 실린 신소당, 안연희, 이금사 등의 독자투고문이나 기생들의 상소형식의 투고문²⁹⁾ 등에서도 당시 여성들의 계몽의지와 솔직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여성경험이 반영되면서 일방적인 계몽담론과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성 가사체의 연구에서는 『여성해방가』, 『경계사라』 등의 개화가사에서 보이는 남녀동등론과 여성의 존재적 자각, 분하

26) 양반집 여성들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돌린 통문글(『제국신문』 1898년 9월 13일자 「논설」)에서는 여성교육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세상에 남녀가 다를 것이 없거늘 어찌 남자의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심규에 앉아 남의 압제만 받으리요 문명한 나라에서들은 여자가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배워 학문이 남자만 못하지 않은 고로 남녀가 동등권이 있오되 슬프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여 세상 형편을 모르고 병신 모양으로 지냈으니 유지하신 동포 형제들은 우리 새로 설립하는 학교에 보내어 각 항 학문을 공부시키라.”는 내용으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상경, 앞의 책, 37쪽)

27)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2004.

28) 이경하, 앞의 논문, 72~74쪽.

29) 기생들의 상소 형식 투고문에 대해서는 서지영, 앞의 논문, 197~200쪽을 참조.

고 서러운 정서적 태도³⁰⁾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분하고 서러운 정서적 태도로 설명되는 여성들의 감정은 무존재에서 근대의 평등의식을 접한 여성들의 충격과 감정적 혼란 등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여성적 경험과 감정이 연설체 신소설의 여성담론에서는 모두 사라진다. 대신 태서의 예화나 중국의 고사가 다양한 현실문제를 평가하는 지식이 된다. 여성이 말하고, 여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경험이나 갈등은 사라지고 있어서 연설체 신소설에서 구현된 여성담론은 단성적인 계몽의 논리들이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소설의 내용에 대한 비판과 한글의 사용자였던 여성의 지식이 모두 부정되는 방식을 통해 여성의 경험, 감정이 지식의 세계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6. 마무리말

이 글에서는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담론을 분석하는 한 시도로 연설체 신소설 중에서 여성인물들의 연설을 다루거나 여성을 계몽하는 담론을 다룬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근대 공론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신소설은 법과 제도의 변화와 사적 영역의 갈등 속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중재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공론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호명되고 구성되었는지, 어떤 가치가 생성되고 재배치되었는지는 근대적 삶을 구성하는 한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 주목한 연설체 신소설은 근대적 말하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말하기의 형성과정 속에서 한글 세계로 공론장을 이전하는 한문 중심의 남성지식인이 언어를 통해 젠더 재배치를 하는 방식이 드러난다. 여성도 공론장의 성원으로 호명되고 발언의 가능성을 얻었지만 실제 연설체 신

30) 고순희의 논문에서는 신여성, 기생, 첩, 창녀 등을 대상으로 부정적 여성상을 만드는 남성주의적 시각의 개화가사들과 여성의 시각을 보여주는 규방가사의 여성담론을 대비시켜 분석하고 있다.(앞의 논문, 209~217쪽 참조.)

소설은 여성의 경험이나 정서와는 달리 남성적 계몽의식의 일방전달로 읽혀진다. 여성이 문란한 계몽 대상으로 구성되고, 생활세계의 경험이 부정되고, 여성적 감정이 삭제되는 전형적인 남성적 제도로의 재가입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종』에서는 한문 대신 새로운 한글공론장으로 이전한 남성지식인이 그동안 한글 사용자였던 여성들의 언어를 전유하면서 내용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위계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간의 한글 소설은 허랑, 방탕, 퇴폐한 글이었으며, 한글세계에 있었던 여성들은 그간 한 글자도 지식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설체 신소설의 계몽연설은 오랫동안 여성의 언어였던 한글의 세계가 지식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자기 부정을 거치고 다시 남성적 지식의 세계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안국선, 『금수회의록 외』, 범우비평문학 4, 종합출판범우, 2004.
 최찬식 외,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8.

2. 단행본

-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142~168쪽.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407~453쪽.
 송호근, 『시민의 탄생~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변동』, 민음사, 2013, 5~22쪽, 409~427쪽.
 양문규,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출판, 2013, 43~65쪽.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25~39쪽.
 이황직,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 프로네시스, 2007, 13~18쪽, 66~70쪽.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조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2001, 25~36쪽.

3. 논문

김지영, 『근대적 글쓰기의 제도화 과정과 변환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9, 38~68쪽.

문한별, 『연설의 근대적 서사화 가능성~연설체의 서사적 특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8, 2012, 325~344쪽.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담론 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42~58쪽.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역사』 12, 2010, 189~230쪽.

신지영, 『연설, 토론이라는 제도의 유입과 감각의 변화』, 『한국근대문학연구』 6, 2005, 9~41쪽.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8, 2004, 67~98쪽.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14~24쪽.

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 안국선의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7, 2007, 151~185쪽.

전은경, 『근대계몽기 지식인 독자의 '읽기'와 '쓰기'~대한민보 『풍림』의 대화체서사와 토론체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5, 2013, 513~554쪽.

정우봉, 『근대 계몽기 수사학 논의의 한 국면 : 안국선의 연설법방(演說法方)을 중심으로』, 한국수사학회 고려대학교 레토릭연구소 2005년 10월 월례 학술 발표회, 2005.

홍순애, 『근대소설의 형성과 연설의 미디어적 연계성 연구~191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2, 2009, 599~626쪽.

Abstract**A Discourse of Women in Modern Public Sphere**

- Focusing on the Oratorical Sinsoseol

Lee, Sun-ok

This study tries to analyze women's discourse of the oratorical Sinsoseol which was written by speech form, 1890-1910, and to examine how to be called and composed modern women focusing on the oratorical Sinsoseol. The reason to inspect the oratorical Sinsoseol in the aspects of the public sphere which forms public opinion is more of political discourse which communicates with media discourse than completed structure as a genre. Sinsoseol of speech form is a novel genre to make narrative of speech.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es on Ahan Kooksun's 『Yeonseulbeubbang(Method of speech)』, 『Kumsuhoeirok』, and 『Jaujong』 from Lee Haejo, which deal with women subject. Ahan Kooksun's novel deals with equality between women subject and men subject in modern society. On the other hand, his novel makes women as a target of the enlightenment. And so his novel invented a culture of women as a symbol of disgraceful Joseon and besides dirty and promiscuous sexuality. Lee Haejo's novel depicts a woman protagonist as a speaker who makes an enlightenment discourse. But the woman protagonist in Lee Haejo's novel speeches self-denial discourse that Hangeul novels which women readers have been reading for a long time are obscene, miserable and fanciful. Between 1890 and 1910 which called early modern era was the period that women tried to enter the public

society and they also began to appear as a subject of speeches. The experience with participation in speeches or debates inspired women to be being a subject of female.

As patriotism and ideology of modern national sovereignty were combined, women began to be considered as a nation. Speeches which enabled women to say an official statement and debates were also one of the main causes to stimulate that idea. However the discourse of women and the view of language through the oratorical Sinsoseol showed the typical reversion to a male dominated society, which deleted the sensibility of feminine language and described that women were the promiscuous subject to be enlightened and the ignorant people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world of life. Particularly 『Jaujong』 showed the process that male intellectuals shifted to a new public sphere which used Hangeul instead of Chinese character, Hanmun. They exclusively possessed the language of women and then they also built a new contextual hierarchy of language. Until that time, Hangeul novels had been often considered to be decadent and dissipated and the women who had used Hangeul were even ignorant of a letter. Though women protagonist appeared as a speaker, after self denial that the world of Hangeul did not mean the world of knowledge, Hangeul was reorganized to male-oriented knowledge.

Key words : Sinsoseol(new novel), Sinsoseol of Speech Form, Public Sphere, Women's Discourse, Gender

■ 본 논문은 2015년 3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4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